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장시광*

1. 서론
2.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
 - 2.1. 전체 여성반동인물의 개관
 - 2.2. 개별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
3. 여성반동인물을 통해 본 작품의 의미
 - 3.1. 투기 금지 이데올로기의 실상
 - 3.2. 탈이념적인 인물형 제시
 - 3.3. 주변인으로서 여성들의 소외 현상
 - 3.4. 혈통 중심의 선민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
4. 결론

* 홍익대 강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현성록>의 지속적 여성반동인물은 화씨와 여씨이다. 이들은 모두 투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씨는 자신의 투기 때문에 오히려 동렬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빚는 인물이다. 화씨는 석파, 남편과 갈등을 벌이는데 이러한 갈등은 모두 동렬인 석명혜 때문에 비롯되었다. 따라서 석파와의 갈등은 석명혜와의 갈등이 전이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늑혼에 의해 소경과 혼인한 여씨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석명혜와 화씨를 모해한다. 이 때문에 석명혜는 출거되고 화씨는 출거지화의 위기에 몰린다. 여씨가 사용한 결정적인 반동행위의 수법은 상대여성의 정절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정절은 조선 시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던 지고의 덕목이라는 점, 그리고 그 때문에 주동인물이 고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여씨의 이야기에는 정절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씨의 반동행위는 소경의 깨달음으로 발각이 되고 여씨는 끝내 출거되고 만다. 그런데 반동행위로 인한 남녀주동인물의 고난이 다른 대하소설이나 <사씨남정기> 등의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데, 이는 여성독자에게 흥미보다는 교훈을 더 깊게 전달하려는 서술자의 의도로 보인다.

서술자는 화씨와 여씨 등 투기하는 인물을 주요반동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의 투기에 대해 강력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반동인물의 설정뿐만 아니라 소월영과 같은 여성주동인물의 언술, 길복 모티프의 제시 등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서술자는 투기 금지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이면적으로 다처제 혹은 처첩제 하에서 질곡을 겪는 여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씨나 여씨는 당대의 유교 이념을 처음부터 부정하려 해서 부정하는 인물은 아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즉 자신 외에도 아내가 여럿인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기의 심성이 발현된 것이다. <소현성록>에는 이처럼 이념의 체화자나 반대자가 선명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환경에 따라 인간의 심성이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같은 여성반동인물이라 해도 기득권의 유무 여부에 따라 행위의 방식이 달라진다. 혼인에 관한 한 기득권자인 화씨는 주동인물인 석씨에 대해 직접적

인 반동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원망하는 마음만을 품는 데 반해, 비기득권자인 여씨는 반동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득권자에 비해 비기득권자가 훨씬 심리적 억압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반동인물이 몰려 있는 집안을 상징함으로써 혈통을 중시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동인물 가문이 지니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반증하는 장치로서 기득권자의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소현성록>은 반동인물의 양적, 질적인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처제, 혹은 처첩제 하에서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억압과 질곡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변인, 비기득권자인 여성은 그 억압과 질곡에 대해 상이하게 반응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성반동인물이었던 것이다.

핵심어 : 대하소설,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 투기, 이데올로기

1. 서론

이 글은 <소현성록> 연작의 전편인 <소현성록>의 여성반동인물¹⁾을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기존의 소설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이는 고전소설의 인물이 개성적이지 않고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플롯에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이러한 시각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인물이 소설의 주제나 세계관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면 인물 연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할 작업이라 하겠다.

인물 가운데 본고에서는 반동인물을 살피려 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인물²⁾에 국한하려 한다. 반동인물을 살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동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주동인물 중심의 연구는 서술자가 문면에 표출한 의식을 좇아 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놓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반동인물 가운데에서 여성에 국한한 것은 <소현성록>에 남성반동인물보다는 여성반동인물이 많이 등장한다는 작품 내적 요인과 <소현성록>을 비롯한 대하소설의 주 향유층이 주로 여성이라는 작품 외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반동인물을 포함한 인물에 관한 기존 연구의 시각은 서로 갈려 있다. 임치균은 여씨를 ‘최악의 인물’, 혹은 ‘악인’으로 지칭하며 인물을 주로 남성주동인물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³⁾ 박영희와 문용식, 최기숙은 남성

1)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상대개념이다. 본고에서 주동인물은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로, 반동인물은 서술자의 시각과는 무관하게 주동인물에 맞서는 인물로 보았다. 인물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줄고,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4), pp.15~18.

2) 본고에서는 지속적 여성반동인물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필자는 반동인물을 분량에 따라 일회적, 지속적 인물로 나누었다. 일회적 반동인물은 1/40 이하로 등장하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소현성록>의 여성반동인물 중 일회적 반동인물인 방씨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여성주동인물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4) 이들은 모두 주동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정창권과 백순철은 여성반동인물을 욕망을 좇는 인물로 파악하고 타파되어야 할 악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5)

여성반동인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진 문제이다. 필자는 인물을 선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사회적,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비평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매우 자의적, 주관적인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대본으로 삼은 작품은 이대 소장본 15권 15책의 <소현성록> 연작으로서 <소현성록>은 그 중 1권부터 4권까지이다.

2.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

2.1. 전체 여성반동인들의 개관

<소현성록>에는 총 네 명의 반동인물이 등장한다. 이 중 남성반동인물은 여운 1명이고 나머지 세 명이 여성반동인물이다. 여운은 여성반동인물인 여씨의 아버지로 소경을 해할 생각을 품고 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반동행위는 보이지 않는 일회적 반동인물이다. 이를 볼 때 <소현성록>에는 남성반동인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3)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태학사, 1996).

4)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1998).

5)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98)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다만 백순철은 여씨를 '악인'으로 지칭한 바 있으나(p.141), 이는 여씨를 욕망의 구현자로 보는 논지를 해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논의를 위해 전체 반동인물의 출현 빈도를 도표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현성록> 반동인물의 출현 빈도

남성	여운				3	
여성	화씨	1	2			
	여씨		2	3		
	방씨				4	
	권	1	2	3	4	

[표 1]을 근거로 여성반동인물의 출현 빈도를 차례로 보면 화씨와 여씨, 방씨의 순으로 높다. 이 가운데 지속적 반동인물은 화씨와 여씨이고 일회적 반동인물은 방씨⁶⁾이다.

화씨와 여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화씨는 소경의 원위로서 소경이 석명혜를 再室로 맞을 때부터 투기를 발하는 인물이다. 일부 연구자는 화씨를 반동인물로 보지 않았으나,⁷⁾ 필자는 화씨가 석파와 대립하는 것은 동렬인 주동인물 서명혜와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반동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여씨는 소경의 제 三室로서 석명혜와 화씨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여성반동인물이다.

<소현성록>은 4권 4책이라는 분량의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지속적 여성반동인물의 수가 <소씨삼대록>에 비해서나 전체 대하소설의 반동인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그 여성반동인물들이 남성주동인물인 소경의 아내들이고, 이 때문에 갈등의 성격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

6) 방씨는 후편인 <소씨삼대록>에서의 활약이 큰 인물이다. 방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줄고, 앞의 글, 제2장 1절.

7) 임치균은 화씨를 '중간적 인물'로 보고 백순철 역시 여씨만을 '악인'(백순철의 용어)으로 보았다. 임치균, 앞의 책 : 백순철, 앞의 글.

러나 이러한 수적, 질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소현성록>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은 그리 작지 않다.

2.2. 개별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

2.2.1. 투기로 인한 원망의 표출: 화씨

서술자는 화씨가 남편 소경에게 부합하는 아내가 아님을 양부인의 시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양부인은 소경이 화씨와 혼인하는 날 화씨를 처음 보고 소경의 짝이 아님을 내심 불쾌해 한다(권1, 47~53면). 양부인의 이러한 태도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으로서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절박한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다.⁸⁾ 즉 가문을 제대로 이끌 종부를 얻기를 원했으나⁹⁾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의 표출인 것이다.

화씨는 양부인의 염려와 같이 그 행동이 종부에 걸맞도록 그려져 있지는 않다. 남편 소경을 꾸짖기도 하고(권2, 5~13면), 자기 자식들을 때리며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권2, 26~29면). 그런데 화씨가 이처럼 남편과 자식들에게 온화하지 못한 것은 성품이 極惡해서가 아니다. 화씨를 그렇게 만든 것은 소경에게 두 번째 아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원래 화씨는 남편 소경에 대한 은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화씨 텨성이 영민흐나 성되 조급초강흐고 또 사랑 듯히 너기를 태산갓티
흐야 은정이 그죽흐야 병되이 다리고 친이흐미 극진흐디 사랑이 석〃흐야 일
죽 스〃 정을 니르논 일이 업고 공경흐나 너모 인동흐기로 투기흐는 일심이
〇〇〇디 아닐 괴습이라 사랑이 일즙 방외에 창첩이 업고 가뉘의 흥장시네 무

8) 기존 연구에서 양부인의 이러한 여가장적 입지에 대해 논의가 된 바 있다. 박영희, 앞의 글; 문용식, 앞의 글; 최기숙, 앞의 글; 백순철, 앞의 글.

9) 문용식은 화씨의 갈등이 야기된 근본적 원인은 제1부인인 화씨의 자질이 종부로서 부적당하다는 가문 내부의 판단 때문이라 언급했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문용식, 앞의 글, p.111.

궁혹디 유정호미 업스며 언어간의도 지취를 일컫디 아니코 겹호야 으지 이시
니 통세 극혹디라 스스로 일신이 복 되물 깃거호더니 석파 단정호 가부물
도〃와 지취하라 혼다 호니 엇디 분〃티 아니리오 (<소현성록> 권1, 93면)

화씨는 여성으로서 일부일처제가 가져다 준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남편이 비록 정을 표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공경하고 또 재취를 일컫지 않으며, 자식을 낳아서 편안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씨의 입장에서 볼 때 석명혜를 소경의 재실로 들이려 하는 석파(소경의 서모)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씨는 석파에게 쫓아가 원수라 하면서 석파를 죽이겠다고 하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한다(권1, 92~95면). 소경이 석명혜와 혼인한 후에도 화씨는 석파를 보면 變色含怒하며 갈등 관계를 유지한다.

화씨와 석파의 이러한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 전이된다. 화씨에게 있어 석파는 시모 양부인과 지위는 다르지만 응당 시모의 대접을 해야 할 인물이다. 남편 소경의 庶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화씨와 석파의 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전이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사실 소경은 석파의 재취 권유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화씨는 이를 오해해 소경이 다른 아내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았다. 화씨의 입장에서 보면 소경의 재취는 애정의 분산, 세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화씨는 시모 급인 석파에 대해 불손하고 남편인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패륜적 여인이다. 따라서 소경도 화씨와 심각한 갈등을 빚을 여지가 다분했고 실제로 화씨를 大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씨를 黜去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 양부인의 권고 때문이다.

서술자는 석명혜가 소부에 영입된 것을 화씨의 투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즉 석파에 이어 소월영까지 석명혜의 영입을 주장하자, 양부인이 화씨가 투기하면 석명혜를 취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겠다고 소월영에게 약속한다. 팔왕이 중매를 와서 양부인에게 혼인을 청하자 화씨가 곁에

있다가 우는 것을 보고 양부인이 許婚을 하고 마는 것이다. 자신의 투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할 상황을 맞게 되는 역설적 장면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씨는 석명혜를 영입하는 날 남편 소경의 길복을 짓는다(권2, 40~46면). 대하소설에서 다처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의 하나인 길복 모티프¹⁰⁾가 <소현성록>에도 등장하는데, 화씨의 투기를 드러내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양부인이 양양불낙하는 화씨를 제어하기 위해 화씨에게 길복을 지으라 명하고 이에 화씨가 눈물을 흘리며 길복을 짓는 것이다.

화씨는 석명혜를 주선한 석파와 갈등을 빚고, 석명혜를 맞이할 남편과도 갈등을 하지만, 정작 동렬인 석명혜와 직접적인 갈등을 빚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석파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인 갈등을 할 뿐 여성주동인물이자 자신의 적국인 석명혜를 직접 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화씨와 석파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화씨와 석명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¹¹⁾ 석파는 다만 석명혜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화씨와 석파의 갈등은 화씨와 석명혜 간의 처처갈등이 전이된 형태인 것이다. 화씨는 투기하는 심리만 지니고 있을 뿐 석명혜에 대한 구체적인 반동행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화씨를 반동인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화씨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이된 형태로 석명혜와 갈등한다. 그리

10) 길복 모티프라는 말은 필자가 지어낸 용어이다. 대하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집안에서 기존의 아내에게 남편의 길복을 지어 입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모티프에는 여성의 투기를 억제하고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

11) 박영희는 양자 사이에는 긴장 관계는 있으면서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석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영희, 앞의 글, p.109.

고 투기의 심리는 행위로서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다. 소경을 꾸짖는 행위나 자식을 때리는 행위, 석파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소경이나 자식, 석파와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석명혜와의 갈등이 전이되어 나온 행위인 것이다.

서술자는 반동인물로 설정된 화씨나 주동인물로 설정된 석명혜에 대해 이념적 異端者, 혹은 그 체화자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연적인 감정의 소유자로 그리고 있다. 이 점이 인물 묘사와 관련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석명혜는 화씨의 투기에 대해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자신을 소부에 소개한 석파를 원망한다. 석명혜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이다. 기실, 당대 여인에게 요구된 이념은 인간적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동렬이 여럿이라 해도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 동렬로 인해 심적 고통이 있어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철인적 여인을 그린 다른 대하소설의 경우, 슬퍼하는 심리도 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명혜는 그러한 화석화한 여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석명혜의 이러한 모습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화씨 역시 처음부터 서술자에 의해 ‘악인’으로 설정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다. 화씨는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 화씨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 심리와 행동을 달리 표출하고 있다. 화씨는 석명혜를 들인다는 집안 사람들의 말에 불쾌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집안 사람과 갈등을 한다. 그러나 양부인이나 소경의 질책을 당하면 곧바로 사죄하고 양양하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화씨의 투기는 한 때의 분격을 참지 못해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투기에 따른 구체화된 행동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¹²⁾

12) 이러한 모습은 뒤에서 살펴볼 여씨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투기로 인한 상반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석명혜나 화씨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스펙트럼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석명혜는 유교 이념으로 화석화된 여인과는 거리가 있는 주동인물이고, 화씨는 동떨을 모해하지 않고 다만 원망하는 반동인물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인물들은 아닌 것이다.¹³⁾

서술자는 화씨를 통해 외부 조건이나 환경이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아내를 여럿 둔 제도가 여성에게 미치는 질곡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온건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던 화씨가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위협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서술자는 또 여성에게 것처럼 편안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제공했던 사회가 바로 조선 후기 사회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이면적으로는 다처제 혹은 처첩제의 모순과 질곡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고한 남성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설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소설적 장치를 써야만 했다. 그래서 설정한 것이 화씨의 '躁急勦剛한' 성격이다. 화씨는 여유 있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언급하여, 화씨의 투기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에서 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도의 모순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한, 서술자의 이러한 제시 방법은 유교 이념이 팽배해 있고, 여성 독자에게 소설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던 당대 사회에서는 부득이한 것이었다. <소현성록>이 안동 권씨 가문과 같은, 당대의 벌열 집안에서 읽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¹⁴⁾ 결국 서술자는 화씨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교양소설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¹⁵⁾ 이면적으로는 다처제의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 임치균이 화씨를 중간적 인물로 본 것은 화씨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치균, 위의 책, pp.79~80.

14) 박영희, 앞의 논문에서 용인 이씨의 친가와 시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하였다. 옥소 권씨는 안동 권씨가 사람으로서 遯菴 權尙夏의 조카이다.

15) 기존 연구에서 <소현성록>을 교양소설로 본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연유한

2.2.2. 투기로 인한 행동의 발현: 여씨

여씨는 소경의 세 번째 아내이다. 여씨의 경우, 이미 소부에 영입되기 전부터 반동행위를 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늑혼 모티프의 설정이 그것이다. 즉 아버지가 여운이 親姪 여귀비에게 부탁해 딸 여씨를 소경과 혼인하도록 부탁해 상이 소경에게 賜婚한 것이다. 이른바 늑혼 모티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늑혼에 대한 대하소설 서술자들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영입되는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 임금과 연관된 인물이기 때문에 시가 식구들이 그 여성을 대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 멸문지화까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의 서술자 역시 늑혼에 대한 그러한 통념을 반동인물 설정의 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임금의 혼인 명령에 대해 소경이 대응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 자신에게 이미 혼인한 아내가 있음을 들어 임금의 명령을 사양했으나 임금의 애정이 어린 딸에 감격해 응낙하고 마는 것이다. 소경의 태도는 양부인의 심리에 따라 또 달라진다. 양부인이 늑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 따라 소경 역시 불편해 하며 마지못해 여씨를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경은 임금의 애정에는 감격하다가도 양부인의 염려 앞에서는 늑혼에 대한 일반화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감정에 충실한 인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¹⁶⁾

여씨는 구체적인 반동행위를 하기 전에도, 소부에 영입될 때부터 이미 소경과 양부인에 의해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힌다.

장춧 날이 느즈매 너가의 가 신부를 마자오니 용피 아름다오더 부인과 상체
것거 아니른 그 심경을 췌터 보와 브정흔을 놀나미라 (<소현성록> 권2, 88면)

소경과 양부인은 여씨가 不正¹⁷⁾할 것이라 꿰뚫어보고 있다. 서술자는

것이다. 박영희, 앞의 글 ; 최기숙, 앞의 글.

16)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살핀 바, 화씨와 석명혜의 경우에서도 나타나 있었다.

소경과 양부인의 해안을 통해 여씨의 심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술자는 여씨의 반동행위에 대한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다.¹⁸⁾

여씨가 석명혜와 화씨에게 반동행위를 하게 되는 계기는 애정의 독점과 가권의 쟁취, 이 두 가지이다.¹⁹⁾ 여씨가 반동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은 그녀가 늑혼에 의해 혼인한 데다, 그 심성이 바르지 않을 것이라는, 소경과 양부인의 투사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이는 여씨의 반동행위를 개인적 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기실 다처제 혹은 처첩제라는 제도의 모순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으나 서술자는 이를 교묘히 위장하면서 여씨의 '악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씨의 반동행위 수법은 전형적인 것이다. 석명혜의 필적을 모사해 축사를 써 양부인 침소에 놓기도 하고, 석명혜의 시녀와 공모해 양부인의 음식에 독약을 넣기도 한다. 이러한 계교가 무위로 돌아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개용단을 먹고 석명혜로 변해 소경에게 나타나 淫亂之說과 狂妄之行을 행하며 석씨를 간통한 여인으로 모함한다. 필적 모사와 독약 첨가와 개용단 수법은 대하소설 반동인물의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소현성록>에서 그 단초를 보이고 있다.²⁰⁾ 결국 소경은 이 계교에 속아 석씨를 출거하고

17) 필자는 '부정'을 '不貞'으로 보지 않았다. 이후의 사건 전개를 보면, 여씨가 외간 남자를 연모하거나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8) 이러한 인물 형상화의 방식은 凡人이 등장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추구하는 현대 소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방식으로서 고전소설이 지닌 독특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는 고전소설이 지향하는 하나의 '사실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설정한 기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19) "너시 또 생각헌디 화시를 더자 업시호야 그 가권을 아술 거시라"(<소현성록> 권3, 36면) : "더욱 화시를 업시코 득통코져 쫓이 니러나"(<소현성록> 권3, 37면)

20) 필적 모사, 독약 첨가, 매골 등 대하소설 반동인물의 수법을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내려 한 연구도 있다. 정병실, 「완월회맹연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9).

만다.²¹⁾ 여씨는 화씨를 모해할 때에도 역시 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변한 후, 외당에 나가 소경 곁에 앉아서 정을 누를 길이 없음을 말함으로써 화씨에 대한 소경의 정이 소박해지게 한다.

여씨의 계교에 석명혜는 출거되고 화씨는 출거지화의 위기에 몰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경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경은 여씨의 계교에 속아 석명혜를 쉽게 출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소경이 신명한 위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지이다.²²⁾ 다른 대하소설의 남성주동인물과 비교해 보면 소경의 神異道를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이씨세대록>의 이흥문이나 <명주보월빙>의 정천흥은 반동인물의 행위에 대해 통찰력을 지니고 속지 않아, 자신의 아내를 보호한다. 이흥문이나 정천흥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소경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로 등장하나, 이처럼 인물의 신이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소경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가정소설의 남성인물을 떠오르게 한다. 가정소설과 대하소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사씨남정기>에서 유연수가 교채란의 계교에 속아서 사정옥을 내치는 모습이나, 기타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무능한 가장의 모습은 소경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소경의 이러한 모습은 초기 국문소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즉 이념에 경도되어 인간적 모습을 갖지 못한 화석화한 인물이 아닌 보통 인간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간직한 인물이 바로 소경이라 할 수 있다. 후대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하소설에서는 이처럼 인간적 약점을 지닌 주동인물이 드물게 보인다는 점에서도 소경의 모습은 초기 대하소설이 지닌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여씨의 반동 행위 수법은 여성의 정절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21) 양부인은 속지 않으나 소경이 워낙 완강해 결국 출거를 허용하고 만다.

22) 선행 논의에서는 이 점에 대해 소경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소경이 엄정하게 치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치가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무능한 가장의 편린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박영희, 앞의 글, p.111.

목을 요한다. 행위 대상을 모두 정절이 없는 여인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정절은 조선 시대 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신 덕목이었다. 따라서 석씨와 화씨를 정절이 없는 여인으로 포함한 것은 여씨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수법은 예컨대, 가정소설인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가 장화를 포함할 때에도 썼던 것으로서 고전소설에서 상대 여성을 포함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설정 방식은 곧 당대의 경직된 정절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²³⁾ 여성에게 강요된 정절의 문제는 여성이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정표정책과 수신서를 통한 교육 때문에 당대 여성은 정절을 지상 최대의 수신 덕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반동행위의 수법은 바로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를 정표정책이나 수신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씨의 궁극적인 목적은 寵愛와 家權의 획득이다. 이 가운데 여씨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남편의 총애이고, 가권의 획득은 석명혜가 출거된 뒤에 생겨난 욕망이다. 여씨가 처음 계교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 제1부인 화씨가 아니라 제2부인인 석씨라는 점은 서술자의 관심이 일단 宗婦되기에 있기보다는 아내들 간의 '쟁총'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그 '쟁총'은 궁극적으로 가권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씨는 석씨가 출거되고 화씨와 둘만 남게 되자, 화씨를 마저 제거하고 가권을 쟁취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씨를 통해 환경에 따른 욕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화씨를 논할 때 살핀 바 있지만, 여씨를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씨와 화씨는 처지가 달라 욕망의 발현 정도와 그 종류가 다를 뿐이다. 화씨의 경우, 혼인에 관한 한 석명혜보다는 기득권자였다. 그리고 그 심성 또한 그리 극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석명혜에 대

23) 박영희가 이러한 견해를 보였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앞의 글, p.110.

24) 박영희, 앞의 글, p.109.

한 견제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고 다만 심리적 동요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비해 여씨는 후에 소부에 영입된 비기득권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평온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지니고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상대 인물을 견제해야 했고 심성 또한 바르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동렬과 쟁충하고 석명혜가 출거된 뒤에는 자연스럽게 쟁충 겸 가권의 쟁취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여씨의 반동행위는 소경의 깨달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즉 소경이 친구들로부터 강주의 개용단 얘기를 듣고 문득 자신을 분노케 했던 석씨와 화씨가 본래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화씨로 변해 다시 온 여씨에게 외면회단을 띄여 정체를 드러내게 한 것이다. 여씨는 결국 출거됨으로써 더 이상 반동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씨의 반동행위가 발각되는 과정에는 남녀주동인물의 심각한 고난이 수반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여타의 대하소설과는 다른 모습이며, 심지어 대하소설의 편린을 간직하고 있는 <사씨남정기>와도 다른 모습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출거된 사씨가 도로유리하며 남쪽으로 가 황룡묘에 들르고 다시 집안에 복귀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고난이 수반되어 있고, 그 와중에 남성주동인물인 유연수 역시 고난을 받다가 황룡묘에 들러 사씨의 애매함을 깨닫고 그 후에 빈동인물을 치치하고 있다. 여성주동인물의 출거에서 복귀, 남성주동인물의 또 다른 고난, 남성주동인물의 깨달음과 이에 기인한 여성반동인물의 처벌 등은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일 만큼 갈등이 첨예하고 서사가 극적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여씨의 반동행위는 어이없을 정도로 그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야기의 배치, 비중 등 서사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사씨남정기>의 서술자와는 달리 여성반동인물의 계교와 이에 따른 여성주동인물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사씨남정기>에서는 여성주동인물

의 고난과 귀환 그 자체가 하나의 흥밋거리이며, 여성독자에게는 작중인물과 그들을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그 고난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서사 자체를 통한 이러한 흥미나 대리만족보다는 서사를 통한 교훈 전달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반동행위와 관련된 서사가 길지 않고, 자연적으로 반동인물과 반동인물을 돕는 주변인물도 적게 등장하며, 오히려 주동인물의 입을 통한 교훈적인 내용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 논의에서 <소현성록>을 여성들의 교과서라고 부른 것²⁵⁾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여씨가 반동행위로 인해 출거된다는 설정은 다소 파격적이다. 여타의 대하소설에서 별명 가문의 여성반동인물은 반동행위가 발각되어도 가문에 존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혹 반동행위의 수법이 여씨와 같이 상대 여성의 정절을 문제 삼았다 해도 출거라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서술자가 이렇게 설정한 데에는 여성독자들에게 그 교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서술자는 표면적으로 여성에게 투기 금지와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투기는 七去之惡 중의 하나인데, 여씨가 투기를 부렸으므로 그 규범에 맞게 반동인물의 결말을 처리한 것이다.

3. 여성반동인물을 통해 본 작품의 의미

3.1. 투기 금지 이데올로기의 실상

<소현성록>은 여성의 투기를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과 모티프를 설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여성 독자를 교화하고 있으면서도 이면적으로는 多妻制 혹은 처첩제 하에서 겪는 여성의 질곡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

25) 박영희, 앞의 글.

술자가 여성반동인물이나 여성주동인물, 그리고 기타 모티프를 통해 여성의 투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 그 표면적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 표면적 발언 뒤에 숨어 있는 이면적 목소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여성반동인물인 화씨와 여씨는 모두 투기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인물이다. 비록 화씨와 여씨가 투기를 하는 강도나 그 파급 효과는 다르지만, 서술자가 여성반동인물을 모두 투기와 연관시켜 설정했다는 점은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서술자는 화씨에 대해서는 투기를 그리 강하게 하는 인물로 설정하지 않았다가 여씨에 이르러 그 투기를 강하게 하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말도 투기를 강하게 한 여씨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처벌인 출거라는 벌을 받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투기를 공유하되, 약화된 인물에서 강화된 인물로 설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투기의 심각함을 일깨우는 데 적합하다. 반복되는 구조이면서 내용상 점층되는 방식은 의미의 강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여성반동인물 외에 여성주동인물이나 길복 모티프를 통해서도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즉 서술자는 “므룻 녀지란 거시 복어인이라 유순호오미 큰 덕”(권2, 84면)이라고 말하는 소월영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소월영의 일장 언술을 통해 화씨나 여씨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설파하고 있다.²⁶⁾ 화씨, 여씨와 소월영이 투기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면, 길복 모티프는 대립의 주체가 없기는 하나 투기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편의 재취에 전처가 길복을 짓는 것은 자신이 투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화씨가 울면서 길복을 짓는 것과 석씨가 순순히 길복을 짓는 것은 대비가 된다. 작중인물의 심리를 행동으로 표출해 다른 작중인물이 그 심리를 간파하게 하는 좋은

26) 소월영의 발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필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줄고, 앞의 글, pp.157~158.

에 중의 하나가 바로 길복 모티프인 것이다.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이처럼 투기와 관련된 인물과 모티프를 설정함으로써 여성독자에게 그 위협성을 경계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의 표면적 목소리만을 들을 때 우리는 당시 여성의 실상을 왜곡해 바라볼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목소리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씨와 석씨가 반동행위를 하는 것이나 소월영이 투기를 경계하며 하는 발언이나 길복 모티프는 당대 여성에게 투기를 경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당대 여성이 다처제 혹은 처첩제 하에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 억압과 여성에게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화씨나 석씨가 반동행위를 하게 되는 계기는 근본적으로 아내는 여럿인데 남편은 하나인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못한 상태로 인해 억압을 받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반동행위를 하는 것이다. 소월영의 발언은 어려서부터 여인이 지녀야 할 몸가짐을 교육받은 입장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당대 여성에게 부과하던 이데올로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소월영은 자신이 여성이자 아내이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편의 처첩 관계에 대해 아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이 스스로를 이데올로기의 쇠사슬에 묶어 놓는 것은 바로 남성이 원하던 모습이다. 길복 모티프 역시 남성 중심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티프로서, 여성이 여성 자신을 속박하고 당대 규범을 벗어나려는 여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기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소현성록〉에서 서술자는 투기에 대한 경계를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황하게 주입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여성이 다처제 혹은 처첩제 하에서 겪어야 하는 질곡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딸이념적인 인물형 제시

〈소현성록〉의 인물들은 대개 자연스러운 감정을 지닌 인물들이다. 즉, 이념에 체화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념을 극력 반대하는 전형적인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성반동인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점이다.

화씨는 투기를 부리다가도 소경이나 양부인의 질책을 받으면 곧 사죄하고 평정을 되찾는 인물이다. 그러다가 다시 심리적 동요가 생기면 또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화씨의 이러한 행위는 그녀가 선천적인 ‘악인’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외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심성이 발현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분노할 만하면 분노하고,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화씨는 특정한 이념이나 사.교에 경도되지 않은 전형적인 자연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씨의 경우 화씨보다는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역시 다처제라는 억압적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인물이다. 다만 여씨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씨보다는 적극적이고 과도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화씨가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다면, 여씨는 그러한 상황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씨가 투기를 하는 것은 남편 소경의 애정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행동은 과도했으나 그 행동의 동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다.

여성반동인물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은 주동인물에게도 적용된다. 주동인물은 본고의 대상인물은 아니나 자연스러운 인간형은 〈소현성록〉의 주요한 특징이므로 주동인물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양부인은 남편 소광이 죽은 후 여가장²⁷⁾으로서 소부를 이끌어가며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키는 인물이다. 딸 소교영이 사통한 후 사통한 상대 남성이 집으로

27) 양부인의 여가장적 면모를 살핀 선행 연구로는 다음의 업적들이 있다. 박영희, 앞의 글 ; 문용식, 앞의 글 ; 최기숙, 앞의 글 ; 백순철, 앞의 글.

찾아오자, 양부인은 가차 없이 소교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다(권1, 35~44면). 이러한 모습은 이념을 체화한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절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여인의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의 행동이다. 양부인은 소교영을 죽인 뒤 딸 소월영과 함께 통곡하는 것이다. 대하소설에서 주동인물 가문의 여성이 사통하는 모습은 찾기도 힘들지만, 설사 있다 해도 이처럼 정절을 버린 딸을 두고 통곡하는 어머니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양부인이 엄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녀 역시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한 자연인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소현성, 즉 소경은 양부인으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 효성이 지극하고, 색을 밝히지 않는 인물로서 유교 이념의 구현자라 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경 역시 실수를 하는 인간이다. 여씨의 계교에 속아 아내 석명혜를 출거시키는 것이다. 소경은 여타 대하소설의 남성주동인물과 같이 신명한 천성을 타고난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범속화했다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신이한 모습이 탈색되어 있다.²⁸⁾ 그리고 이 점은 소경을 군자형의 전형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만든다.²⁹⁾ 소경은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어느 정도는 경직된 인물이라는 하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28) 소경의 이러한 모습은 시점의 관점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소현성록>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소경은 역시 작가의 시선 아래 있는, 다른 인물과 유사한 인물일 뿐이다. 그런데, 대하소설의 주동인물 가운데 작가와 거의 같은 시점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도 있다. <이씨세대록>의 이홍문이나 <명주보월빙>의 정천홍, <화산선계록>의 이우수와 같은 인물이 그러하다. 이들 인물에 비교해 볼 때 소경은 凡人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29) 최기숙은 소경을 여색을 멀리하고 풍류를 즐기지 않으며 학문에 전념하여修身之法에 충실한, 효성이 지극한 군자형 인물이라 한 바 있다. 최기숙이 언급한 사항을 군자의 성격으로 규정한다면 이의가 없겠으나, 통상 군자는 治家를 잘한다는 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소경을 군자라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물을 '군자형'이라 부르는 것은 주관적, 자의적일 수 있다. 최기숙, 앞의 글, p.130.

여성주동인물 석명혜는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지으며, 효성이 지극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多才有能하며 孝順兼全한 여성이다. 그러나 석명혜 역시 인간적인 원망과 분노를 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동인물인 화씨의 투기에 대해 석명혜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자신을 그러한 처지에 있게 만든 석파를 원망한다. 또 여씨의 반동행위로 인해 출거되기에 이르고, 소경이 죽으라 하자, 소경에게 자신은 무죄라며 반항한다.³⁰⁾ 석명혜의 반항은 무능한 소경에 대한 질타로서,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이다. 그런데, 석명혜의 성격(character)은 서술자에 의해 유교 이념의 구현자라 표현된 애초의 언급과는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를 성격의 파탈로 보기보다는 유교 이념에 경직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현성록〉에는 이처럼, 여성반동인물뿐만 아니라 주동인물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이념에 경직되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점이 〈소현성록〉이 지닌 인물 형상화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소현성록〉의 인물을 탈이념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더불어 이는 후기소설에 보이는 硬化된 인물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3.3. 주변인으로서 여성들의 소외 현상

화씨는 소경의 첫째 아내이고, 여씨는 셋째 아내이며, 주동인물 석명혜는 둘째 아내이다. 화씨는 투기의 대상인 석명혜가 영입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인물이고, 이에 비해 여씨는 반동행위의 대상인 석명혜가 영입된 이후에 들어온 인물이다. 이처럼 화씨와 여씨는 혼인에 관한 한 각

30) 규장각 21권본에는 소경의 꾸짖음과 석명혜의 반항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유교 이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필사자의 의도로 보인다.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기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고 갖게 된 이러한 지위는 그 행위 방식에도 큰 차이를 갖고 온다.

화씨가 기득권자라면, 석명혜는 비기득권자이다. 따라서 화씨는 석명혜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을 여지는 없다. 다만, 자신에 대한 남편의 애정을 분산시키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화씨가 석명혜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그리 과격하지는 않다. 석명혜에게 직접 불편한 감정을 노출하지는 않고, 석파에게 그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자신이 지닌 중부라는 가문 내의 위치는 확고하다. 따라서 석명혜를 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위치를 쉽게 내 줄 만큼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씨는 화씨와는 달리 석명혜에 대해서 비기득권자이다. 여씨가 극심한 반동행위를 하는 것이 반드시 비기득권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씨는 자신이 갖지 못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석명혜와 화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비록 여씨가 반동행위를 하는 동기를 개인적 심성의 문제로 돌리고 있지만, 여씨가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 그녀의 반동행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화씨와 여씨의 경우에서, 같은 반동인물이기는 하나 그 처한 입지와 환경에 따라 반동행위의 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을 통해 비기득권자가 기득권자에 비해 더 큰 소외를 느끼고 그로 인해 반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인물을 통해 우리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기득권층에서 멀어질수록 소외감이 더욱 크게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변인이고, 같은 여성이라 해도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받는 여성에 비해 주변인이다. 이들 여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반동행위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중심적 사회에 존재했던 모든 여성은 잠재적으로 반동인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4. 혈통 중심의 선민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

〈소현성록〉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서술자의 시각이 반동인물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대하소설에서도 드러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 시각은 한 집안의 인물을 대부분 반동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드러나는데,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인간의 운명은 개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적인 의미로는 혈통을 부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반동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는 여씨의 혈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씨의 아버지인 여운이 그러하고, 여씨의 종매인 여귀비가 그러하다. 여귀비는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운의 賜婚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에 동조한 주변인물에 해당한다.

작품에 혈통을 중시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는 점은 주동인물 가문이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가문이 갖고 있는 대척적 위치는 곧 유교 이념의 수호자와 파괴자의 대척적 위치를 의미한다. 〈소현성록〉의 여성반동인물을 통해서 볼 때, 수호해야 할 유교 이념은 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이 때 주동인물 가문은 유교 이념에 대한 뚜렷한 준수 의식이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대척적 가문과는 변별된다. 이 점을 바로 우리는 선민의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선민의식은 배타적 의식이다.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관점에서 볼 때 유교 이념의 테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반동인물의 시각에서 주동인물을 보면, 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신분이나 지위는 물론이고 그들은 이미 자신과는 천성부터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에는 이처럼 두 인물군간에 선을 그어놓고 있다. 비록 다른 대하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선이 분명하고 확고하지는 않지만³¹⁾ 분명히 변

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민의식을 지닌 이들은 그 권리를 영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개발하는데 <소현성록>에는 그 가운데 투기 금지의 이데올로기가 주로 부각되어 있을 뿐이다. 반동인물은 그 영속화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들의 노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주동인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서사적 구도를 통해 배타적 선민의식과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의식의 충돌을 보게 된다. 또한 선민의식은 기득권자의 지배를 강고하게 하기 위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일 뿐임을 알게 된다. 반동행위는 인물이 처한 환경에 따라 주로 발현됨을 앞에서 살펴본바, 서술자가 제시한 천성의 문제는 서사를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4. 결론

<소현성록>의 여성반동인물은 후편 <소씨삼대록>이나 여타 대하소설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욕망의 양상도 그리 다양하지 않다. 그

-
- 31) 다른 대하소설에 비해 선민의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은 주동인물의 가문에 반동인물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 속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다. 소교영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소교영은 주동인물 집안인 소부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사통해 어머니인 양부인으로부터 사약을 받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소교영은 반동인물의 행위와 유사하게 간통을 하는 대신 그에 대응하는 주동인물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반동인물이라 말하기도 곤란하다. 굳이 말한다면 주동인물 가문의 반동인물급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일반 대하소설에서는 가문의식이 강하고 이에 따라 선민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형을 설정해 놓은 경우는 드물고 혹 있다 하더라도 사통에까지 이른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주동인물 가문에서 반동인물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주동인물이 간혹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인물도 회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교영의 등장은 소설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하겠다.

러나 <소현성록>은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기 위해 투기하고 행동하는 두 여성을 배치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다처제가 당대의 상층부 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억압을 집중적으로 형상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화씨나 여씨는 모두 남편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인물이다. 남편을 정점으로 하여 많은 아내가 그를 보필해야 하는 구조에서 그녀들은 소외된 인물이다. 그녀들이 반동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계기는 바로 이러한 '구조'와 그로 인한 소외 때문이다. 남성중심적인 다처제는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동렬 간에는 우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반동인물은 그러한 강고한 구조를 파괴하려고 했고, 특히 그 가운데 동렬 간의 우애 이념을 부정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기실 자연스러운 심성의 발로라 할 수 있으나 당대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반사회적인 행동이었다. 그들이 반동인물로 설정된 것은 바로 그러한 데에 연유한다.

우리는 이들 여성반동인물을 통해, 비록 서술자가 투기를 표면적으로는 경계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투기 금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꺾어야 하는 당대 여성들의 질곡을 읽어낼 수 있다. 여성이 <소현성록>의 주된 향유층일 것이라는 추정은 이러한 데에서도 확인이 되는 점이다. <소현성록>의 여성반동인물은 비록 반동인물이기는 하나 선천적으로 유교 이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인물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 그들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경직되지 않은 인간형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같은 여성반동인물이라 해도 기득권의 여부에 따라 행위의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에 관한 한 기득권자인 화씨는 주동인물인 석씨에 대해 직접적인 반동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원망하는 마음만을 품는 데 반해, 비기득권자인 여씨는 반동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득권자에 비해 비기득권자가 훨씬 심리적 억압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서술자는 반동인물이 몰려 있는 집안을 상정함으로써 혈통을 중시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주동인

물 가문이 지니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반증하는 장치로서 기득권자의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소현성록〉은 대하소설 가운데 초기작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격 대하소설의 편린을 간직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반동인물에 한정해 보아도 그러한 면이 나타나 있다. 본고의 논의는 〈소현성록〉의 이러한 성격을 여성반동인물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여성 향유층이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처지를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소현성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Abstract

The Actions and the meaning of female antagonists on *Sohyunseongnok*

Jang, Si-Kwang

This thesis is purposed to inquire into what the actions of female antagonists of *Sohyunseongnok* is and what the meaning in it is. The antagonists in *Sohyunseongnok* are Hwa and Yeo, both of whom have jealousy in common. Hwa is an iron character who has to accept rival because of her jealousy. She is in conflict with the Suk old and her husband and this conflict is caused by Suk Myung-he. Therefore the conflict with the Suk old is transferred from that with Suk Myung-he. Yeo, who took a blind man in marriage by a forced consent, plot to do harm to Suk Myung-he and Hwa in different ways. In the end Suk Myung-he is away and Hwa is nearly sent away. Yeo made an issue that the other female is faithful or not as a critical way of reaction. Faithfulness was the most virtue to keep and the agonists went through difficulties. These facts show the ideology of faithfulness is strict. Finally, the actions Yeo is against agonists are found out by her husband and she is sent away. But compare with those of other river novels and *Sasinamseonggi*, the difficulties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go through caused by reaction are not serious, which seems that the narrator purpose to transfer a deep lesson more than an interest to female readers.

A narrator strongly warns of female's jealousy by creating the jealous characters like Hwa and Yeo as main antagonists. The narrator introduces an ideology of banning jealousy, setting up the different devices which include what a female protagonist like So Wal-young says and motif of invoking a blessing as well as

creating female antagonists. These setting is meaningful in that it exposes how the difficulties of female under the system of polygamy, or making a woman a wife and second is very effectively. Hwa and Yeo did not intend to deny the Confucian ideology of that time from the beginning. They begin to bear jealousy characters naturally in their environment that other women become also her husband's wives. *Sobyunseongnok* is unique in that the characters who experience ideology and antagonists are against it are not fixed beforehand. This shows that the human natur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environment. And even same female antagonists act differently depending on what they have some vested rights or not. Having the vested rights against Suk about a marriage, Hwa do not take direct actions against her, who is an agonist, just bears a grudge. But Yeo who does not have vested rights do direct actions. This shows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vested rights suffer from much more psychological repression than those who have them. And a narrator shows his view that he thinks highly of blood line, describing a family in which there are many antagonists. This is an evidence to the contrary of an elitism that the family of agonists have and a false ideology that continues to keep the power of those who have the vested rights.

Despite of weakness in quality and in quantity of antagonists, *Sobyunseongnok* shows the repression and difficulties women who suffer from under the system polygamy, or the system of having many wives. Women who are outsiders and do not have vested rights respond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pression and difficulties while it is female antagonists who try to break them.

key words : river novel, *Sobyunseongnok*, female antagonist, jealousy, ideology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